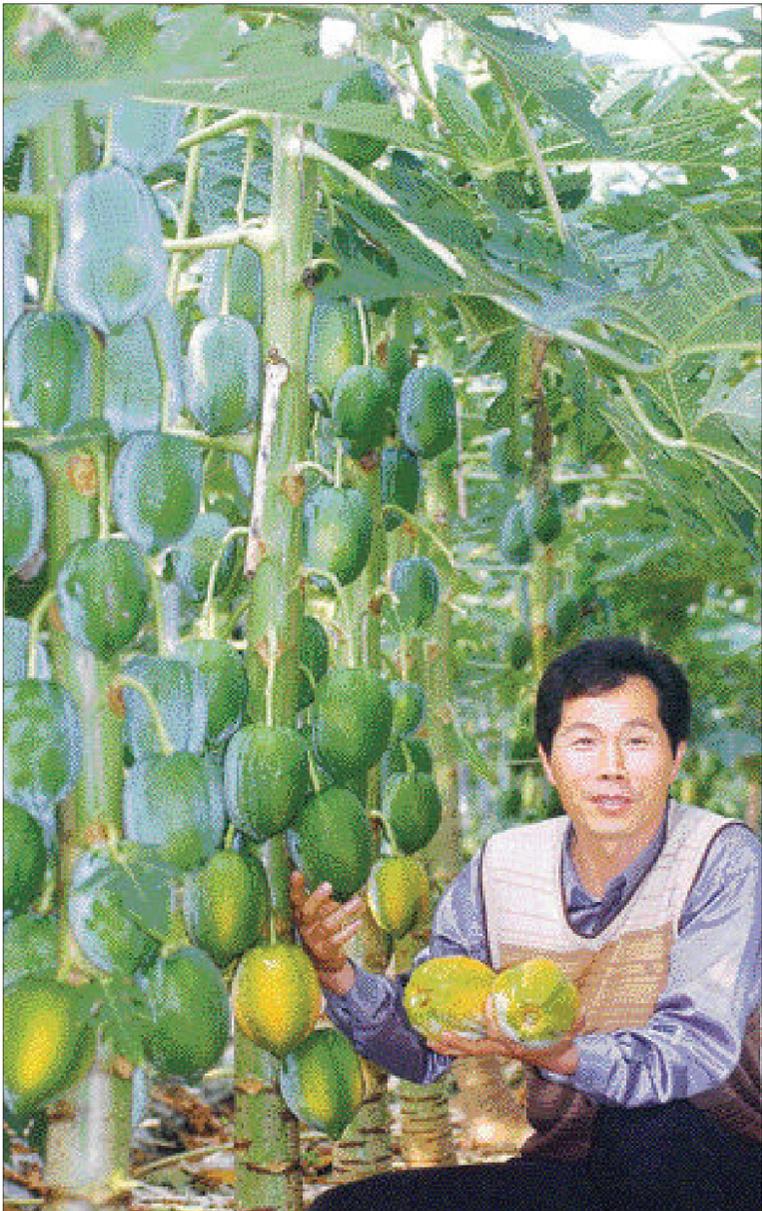




위기의 지역 농업
활로를 찾자

3 곡성 파파야 재배 정재균씨

타이어공장 폐열 이용 막대한 난방비 절감



정재균씨가 열대과일인 '파파야'를 수확하고 있다. 파파야는 비타민 A·C가 풍부하고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있어 최근 웰빙열풍에 따라 꾸준히 소비가 늘고 있다.

무농약 토경재배...수입산 비해 신선도·품질 월등 “열대작물 생산 시스템 갖춰 경제작물로 만들 것”

“높은 온도를 좋아하면서도 다른 작물에 비해 병충해가 적고 빨리 성장해 틈새 작목으로 ‘파파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인근인 곡성군 입면 송전리 비닐하우스 단지 내에 위치한 ‘임마누엘 아트팜’.

모양새는 여타 비닐하우스와 똑같지만 그중 한 동에서 이색 열대과일인 ‘파파야’(papaya)가 재배되고 있다.

정재균(44) 씨는 내륙 산간지역인 곡성에서 열대 과일 재배에 뛰어든 농업사업가이다.

3천300여㎡(1천 평) 규모의 하우스 내에 들어서자 파파야 1천 그루가 뽀뽀이 심어져 있어 울창한 열대 식물원을 연상케 한다. 하우스 천장까지 끈주자란 파파야 줄기마다 초록빛 열매 30~40여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개화·수정해서 노랗게 익어 수확하기까지는 다섯 달 정도가 걸린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제주도도 아닌 곡성에서 열대 과일 재배가 가능한 것은 어찌 된 일일까? 그것은 바로 ‘폐열(廢熱) 난방 시스템’에 비결이 있다. 금호타이어 공장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폐열을 회수해 물을 데운 후 680t 규모의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지하 매설관을 통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하우스 내에 설치된 열교환기 팬을 돌려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는 시스템이다.

파파야 재배에 적절한 온도는 25~30℃, 최소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기존 기름을 이용하는 시

스템으로는 엄청난 난방비 부담 때문에 도전하기 쉽지 않은 작목이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폐열이용 실증시험을 앞두고 ‘운영비가 적게 들면서 폐열과 접목할 수 있는 작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파파야’를 낙점했다.

그리고 30~40cm 크기 동남아산 파파야 묘목 2품종 1천여 주를 수입해 옮겨심었으나 얼마 안 돼 200여 주가 고사해 다시 심어야 했다.

정 씨는 “이식을 싫어하는데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토질과 일조량 등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재배 및 관리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많은 애를 겪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우스 내 2m폭 이랑마다 토양 미생물과 목초액, 액비 등을 방울방울 시간당 1.8ℓ 넣어주는 파이프가 깔려있다. 이러한 ‘토경(土耕)재배’ 덕분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재배, 고객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필리핀 등 수입산 파파야는 검역과정에서 60℃로 훈증소독하고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15일 정도 소요돼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비해 정씨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해 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신선도와 품질에서 월등하게 앞선다.

정 씨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수확을 시작, 판매에 나섰다. 수확은 매주 토요일 가

족들과 함께한다. 파파야의 기능성에 비해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아 판매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판매는 주로 전화주문(061-363-7196)과 함께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 G마켓과 옥션에서 ‘곡성 파파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가격은 5kg 한 상자당 4만8천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 씨는 올해 ‘농업인 개발과제’에 선정돼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2년간 체계적인 ‘파파야’연구를 시작한다.

현재는 5~6m정도로 큰 파파야 나무를 제한된 하우스 높이 때문에 3.2m 정도로 잘라내 성장을 억제하고 있지만 경제성을 맞추려면 파파야 생육에 걸맞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 m당 몇 그루를 심어야 하는지, 시설 내 과습 등 환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적절한 재배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해야 할 분야가 많다.

파파야와 함께 정 대표는 ‘아테모야’(Attemoya) 150주를 시험적으로 재배하고 있다. 솔방울처럼 생겼으나 당도가 펼쳐질 단 20~26브릭스에 달해 ‘나무에 달리는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는 아열대 과일이다. 또 파파야를 관상용으로 키우기 위해 화분재배를 시도했으나 최근 정전사고로 인해 모두 동사(凍死)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정 씨는 “아직은 재배법이 확립되지 않아 일반 농가에서 접하기에 위험부담이 크고 기름을 때서 난방하면 채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소비층이 아직은 특정 층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일정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작물로 토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불수감



망고



용과



구아바

기온상승 농작물 재배지 북상
아열대 과일 소득 작목 부상
전남농기원 망고·구아바 등 시험 재배

지구온난화로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함에 따라 ‘아열대 과일’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동남아 등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작물을 농가 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과일류인 망고, 파파야, 불수감, 블루베리 등을 도입, 시험 재배 중에 있다. 올해는 아테모야(Attemoya), 용과(龍果), 구아바(guava) 등 새로운 과일을 확대 도입해 시험재배할 계획이다.

또한 향료작물인 올리브, 티트리, 라벤더, 레몬그라

스 등은 향수 원료인 정유 생산성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내년에는 노지에 심어 겨울철 내한성과 정유 생산량 등을 파악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 상승(0.74℃)보다 2배(1.5℃)상승했다. 연평균 기온이 2℃ 상승하는 2040년이 되면 전남 남해안 일대는 현재 제주도와 같은 15℃가 돼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밤 8시부터 화려한 성인 쇼쇼쇼!!

국민가수 1월 14일(수)

인순이 단독출연!!

부킹/서비스 만족도 1위 상무나이트